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

(창19:12~29)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
하나님의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맨몸입니다.
맨몸은 우선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주로 맨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형편을 비유적으로 이를 때 맨몸이라고 합니다.
맨몸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가진 것 없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맨몸으로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을 나왔다고도 합니다. 형편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을 이 맨몸과 연관 지어서 생각해보면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몸 운동을 하는데, 신앙은 근본적으로 맨몸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아령이라든지 역기라든지 줄넘기 등 웨이트트레이닝 할 때 쓰이는 이름도 모를 많은 도구들을 사용해서 근육을 키우는데, 맨몸 운동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과도한 볼륨감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신체 전체가 균형 있게 탄탄한 근육으로 채워지면서 부분부분의 바디라인이 아름답게 만들어지기를 원할 때에 맨몸 운동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은 바디빌딩이 아니고 맨몸 운동입니다. 도구를 사용하지 않

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신앙을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서 재정적인 볼륨감, 건강상의 볼륨감, 성공과 형통의 볼륨감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바디빌딩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만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지금 만나고 지금 연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절대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에 의한 공생애를 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전체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려면 절대적으로 맨몸운동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몸이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도, 만날 수도, 연합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 쓰임 받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맨몸 운동이 안 되니까 다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삶의 바디빌딩을 세우려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줄다 줄다가 300만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학생 중에 기독교인이 2% 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놀랍죠. 왜 그렇습니까? 신앙이 무엇인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맨몸 운동이라는 것을 모르고, 삶의 바디빌딩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맥없이 까부라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고사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가?
멸망하는 소돔으로부터 롯이 구출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 롯은 이렇게 자기가 구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도 감격도 없는 것 같아요. 롯과 그 아내의 행동을 보면.
아내는 결국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 아내의 행동을 보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 구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출되었다는 것에 대해 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맨몸만 빠져나왔으니까요.
맨몸만 빠져나왔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북쪽으로 이동해서 하란에 머물고 있다가, 하

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이동할 때에 삼촌을 따라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함께 거하게 되면서, 삼촌 아브라함 못지않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되었고 분가합니다. 땅을 서로 나누어서 정착지를 고를 때에 삼촌이 먼저 고르라고 하니까 날름 받아서 물댄 동산 같이 아름답고 비옥한 들판이 있는 소돔 땅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그동안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획득한 재산의 재테크에 전념한 것입니다. 비옥한 소돔 땅에서 많은 재산의 증식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우여곡절 속에 모은 모든 재산이 깡그리 다 없어져 버리고 소돔에서 맨몸으로 나온 거예요. 가축들, 집, 밭을 다 놔두고 나와야하니 아쉬움이 없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을 보면 잘 드러나요.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이 어떤 상황이었냐?
동이 틀 때에 천사가 “빨리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합니다.
왜 그렇게 급합니까?
천사들이 와서 자기들 눈으로 소돔 성의 죄악상을 보니 그 죄악의 관영함과 재앙의 깊이가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막 쏟아 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내심의 극한점에 달한 것이 보이면서 폭발할 것이라는 느낌을 스스로 체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라고 재촉을 하는데, 문제는 롯이 지체하는 겁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나가긴 나가는데 뭐 좀 들고 갈 것이 없나 챙긴 것이죠. 그래서 두 천사 중의 하나가 한 손에는 롯, 한 손에는 아내를 붙잡고, 다른 천사는 한 손에는 큰 딸, 다른 한 손에는 작은 딸을 붙잡고 뛰쳐나간 겁니다.
만화 같은 것에서 보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홱- 달려갈 때 사람 발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려놓고, 딸려가는 사람은 마치 무슨 종잇조각이 휘어지는 것처럼 휘어져서 딸려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됩니다. 확- 딸려간 겁니다. 맨몸만 나온 것이죠.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걸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화재가 나서 모든 재산이 다 타버렸어요. 공장도 타버리고 집도 타버리고, 귀중품이고 뭐고 다 타버리고 맨몸만 남았어요.
그 맨몸만 남은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라고 한 것처럼 ‘아, 하

나님의 자비가 더해져서 내가 살았구나!'하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잿더미 위에서 울고 절망하지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완전히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비를 더하셨다는 것은 롯의 목숨만 건져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가 오래 살고 유지되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인간의 육체가 이 땅에서 생존을 보장받고 연장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좀 더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자비를 베푸셨다고 하신다면 그건 자비가 아니죠. 자비일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더하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진짜 좋음의 극치가 어떤 상황이고, 무엇이 인간들에게 절대적인 가치인지를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롯이 소돔 성에 와서 재테크해서 번 재산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면, 맨 몸으로 나오게 하신 것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롯을 향해서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아브라함과 관계있는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면서 롯을 맨몸으로 나오게 하시는 맨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데, 진짜 하나님 생각에 그 재산과 가축과 밭과 기업과 귀중품 같은 것들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자비를 더하신 것이 아니라 롯에게 잔인함을 더하신 것입니다.
자비를 더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최고로 좋은 대상은 하나님 자신인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맨몸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가장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시고, 절대가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절대가치가 뭡니까?
절대 가치라는 것은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갖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충족되고 만족이 일어납니다. 절대가치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들일지라도 가져보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색이 바랩니다. 그 느낌이 없어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이 좋지만 3개월 지나면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들어간 아들, 딸 이야기를 할 때에 잠깐 또 다시 기쁨이 살아나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서울대학 들어간 기쁨은 돈 없어서 걱정하기 시작하면 또 사그라집니다.
그런데 이 절대가치라는 것은 한 번 갖게 되면 돈이 없거나, 서울대를 들어가나 못 들어가나, 아프거나 어쩌거나 상관없이 만족과 기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절대 가치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맨몸으로 나온 것이 왜 자비를 베푼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맨몸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내가 소유하고 있거나 형편이 넉넉해서 그것에 취해 있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신 이유는 맨몸 프로젝트를 실행하신 겁니다. 절대가치인 하나님 자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맨몸 프로젝트를 롯에게 자비로서 허락하신 것처럼 결국 맨몸이 되어야만 만나는 것이냐? 물론입니다. 맨몸이 되어야만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사람은 여전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형편이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대로 놔둘 수가 있고 롯은 이렇게 맨몸만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까?
소돔 성이 망해서 롯이 맨몸으로 나온 사건을, 아브라함은 날마다 마음에서 재현하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을 많이 주셨고 이제는 이스마엘도 있고, 군대로 동원할 수 있는 318명의 노비를 갖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재산이 엄청난 것이죠. 318명이 돌봐야 하는 재산인데 종들이 그것뿐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 400명 정도라고 쳐서 그 사람들이 돌봐야 될 재산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준 모든 재산과 아내 사라와 아들 이스마엘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다 소돔 성으로 보고 날마다 맨몸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삶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제단을 쌓는 삶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한 것은, 그 뒤로도 제단을 쌓는 삶이 지속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뒤로 멈춰버렸겠습니까? 몇 십 년이 흐르는 동안에 제단 쌓기도 그만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의 약속들이 점증적으로 실현되는 지점을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신앙의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날마다 소돔 성의 멸망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맨몸으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롯은 어디서부터 어긋났느냐?
물댄 동산 같은 소돔을 골라서 삼촌보다 먼저 택해서 들어갈 때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롯은 아직 하나님이 절대가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성에서 맨몸으로 빠져나온 이 순간이 롯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절정기입니다.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에 의해서 다 잃어버리고 맨몸으로 딱 빠져나온 이 상태가 롯의 인생에 있어서 최절정기인 이유는 진정한 절대가치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온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롯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가치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롯의 아내는 맨몸으로 빠져나올 때에 그 두고 온 재산들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아까움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롯도 그 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결코 하나님이 절대가치 되심을 마음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것 같아요.
부부가 가장 가까워도 마음으로 등을 돌리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몸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렇게 가까이 끌어당기셔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계속 세상의 가치들을 향하고 있으면 기어코 하나님과 원수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 롯에게서 나온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소돔 성에서 맨몸으로 빠져나온 롯에 대한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맨몸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하꼬방 같은 전세방이라도 주어져있다면, 그게 우리 마음에서 소돔 성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까? 다 소돔 성으로 취급이 되어야 해요. 나는 맨몸만 빠져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 맨몸만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맨몸이 될 수가 없어요.
맨몸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지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맨몸이면 맨 마음이죠. 비유적으로 맨몸이라고 하니까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의 맨몸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포개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맨몸 운동 중에 플랭크라는 운동이 있어요. 어떤 운동이냐?
엎드려서 상체를 팔꿈치로 일으킵니다. 팔꿈치가 땅에 직각이 될 수 있도록 해요. 발 부분은 발가락 끝으로 세웁니다. 발을 세우고 팔꿈치를 세워서 몸을 발과 팔꿈치로 수평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수평으로 버티면서 초보는 15초씩 하루에 3회를 합니다. 중간정도 익숙해지면 30초씩 하루에 3회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숙달이 되면 60초씩 4회를 합니다. 제가 그 운동을 하는 사람의 전후를 봤거든요. 저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운동이 아니에요. 그냥 자세만 취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15초, 30초, 60초 동안.

우리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죽으신 예수님께 포개어져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지금 뭔가를 지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든지 안 이루어졌든지 내 마음에서 생각하고 담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은 골3:2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마음을 다 맨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음에 지니고 있는 것들을 다 내보내는 겁니다. 소돔 성에서 롯이 빠져나올 때 맨몸으로 나온 것처럼 내 마음이 관계하고 지니고 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포개져서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져요.
이상하죠?
십자가라는 것이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역사입니다.
스님들처럼 도를 닦으면서 맨몸 되려고 한다든지,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맨몸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길은 다른 길이에요. 그 길에는 끝이 없어요. 결과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통해서 마음이 맨몸이 되면, 그 십자가 너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가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절대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기쁘죠. 기쁘니까 세상을 바라 볼 때에 아무것도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럴 때에 이제 공생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날마다 맨몸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에 의한 공생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생애를 이루시기 위해서 재산도 주실 수 있고, 지위도 주실 수 있고, 자식도 주실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공생애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맨몸 프로젝트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은 망하고 소돔에서 롯은 맨몸으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오게 된 겁니다.
마치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고 괴로워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비가 더해져서 재산, 자식 다 합쳐도 안 되는 가치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내용을 주님께서 마13:44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나머지를 다 팔아서 그 진주하나를 샀다”고 합니다.
‘나머지를 다 판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닌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맨몸 프로젝트입니다.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춰진 값진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이게 바로 맨몸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도 단 하나도 마음에 지니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맨몸이 되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플랭크 자세를 취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되는데, 십자가에서 주님과 포개진 상태에서 15초, 30초, 60초 대신에 15분, 30분, 60분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절대가치이시고 좋으심의 극치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상태로 나아가 살면서 끊임없이 순간순간 맨몸 프로젝트를 기억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의 맨몸을 이루는 겁니다. 무언가가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되찾는 겁니다. 무언가가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는 것이니까.
사실 롯은 말씀드렸듯이 소돔에서 맨몸으로 빠져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절대가치인 것을 알았다면 자기인생의 절정일 수 있었고, 절대가치인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왔던 상황이었어요. 어떤 때보다도 가까이 왔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싹 다 가져가셨고, 완전한 맨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맨몸이 아니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이 맨몸 프로젝트의 자비하심의 경륜을 롯이 과연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생활화하고 있지 못한 우리의 형편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롯의 자손이에요.
맨몸 프로젝트를 자비하심으로 더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절대가치라는 것을 모릅니다.
예배당 큰 것이 절대가치인줄로 알고,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절대가치인줄 알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니 십자가 맨몸 프로젝트가 무효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맨몸 프로젝트를 날마다 수행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강제적인 맨몸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효화 시키는 롯의 자손이냐?
이것을 서로 구분하라고 롯의 이야기가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맨몸 프로젝트.
그 프로젝트에서 지금 여러분께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거나,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진 것이 있습니까? 서운한 일을 당한 것이 있어요? 서운하다는 것은 마땅히 내게 주어져야 하는데 안 주어질 때 서운한 것 아닙니까?

맨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까짓 것 가져서 하나님을 잃느니, 좀 서운한 것이 있어도 정신 차려서 롯의 자손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맨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계신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받고, 내가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다 가져가십시오.”라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플랭크라는 맨몸 운동 포즈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의 공생애 프로젝트가 뒤따를 것이에요.
공생에 프로젝트가 뒤따를 때에는 뭐든지 주실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주시고 뭐든지 다 이루실 수도 있어요. 주시든 안 주시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롯이 소돔 성에서 이룬 이 땅의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맨몸만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맨몸으로 나올 때에 천사가 손을 잡는 바람에 뭘 쥐고 나올 수도 없었잖아요. 하늘과 손을 잡으려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맨몸 프로젝트를 위해, 십자가로 하늘과 손잡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천사의 손에 잡혀 이끌려 나가느라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롯의 상황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십자가에 포개어져서 마음의 맨몸을 이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어코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으시는 공생애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